

“단순 후원보단 쓰임 있는 기부를 하고 싶어요”

●신한국·박정연 ㈜도경건설 대표이사

2013년 설립 도로포장 업체...기술 개발·직원 복지 최우선
2018년부터 청소년·장애인 등 지원...“가치있는 나눔 지속”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돕고,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도경건설 대표이사인 신한국(53)·박정연(50·여) 부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기술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도경건설은 2013년 설립된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 국내 도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포장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신 대표는 1996년 도로포장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내 도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 개인 사업자로 창업했다.

그는 8일 “전세자금 2억5천만원과 은행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회사 화장실 앞에 책

상을 두고 일했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도경건설은 현재까지 6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개의 특허를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직원들의 애사심이 회사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는 신념 아래 2013년 법인을 설립, 아내인 박 대표와 기술 개발은 물론, 직원 복지 증진에 공을 들였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년 직원들과 가족을 위한 해외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워크숍 등을 갖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신 대표는 또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기술자를 우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



㈜도경건설 대표이사인 신한국(왼쪽)·박정연 부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기술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에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 지시 가능, 심장 제세동기, 화장실, 휴게실’ 등 편

의시설을 갖춘 종합안전차량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부부는 지난 2018년 사회로도 눈을 돌렸다. 현재까지 광주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 등에 약 2억2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지난해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 지원금 4천만원을 후원했다.

부부는 올해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찾아서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인프라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내인 박정연 대표는 “기업의 기부 활동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편한 기부자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돕는 가치 있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국 대표도 “단순한 물질적 후원보다는 실제로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과 금전적 지원을 하는 쓰임 있는 기부를 하고 싶다”며 “더불어 건설 분야 현장에 대한 실무 교육과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해 건설업체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웃었다. /주성학기자



폴리텍 광주캠퍼스, 진로체험 ‘꿈길’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최근 송일중학교 1학년 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길’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024학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10개 학과의 각 실습장에서 이뤄졌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진단 체험, 나만의 굿즈 만들기, Chat GPT를 활용한 창작활동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강구홍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학장은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꿈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폴리텍 광주캠퍼스의 직업 교육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지자



순천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순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은행원 A씨는 지난달 중순에 60대 고객이 “지인을 구하기 위해 2천500만원이 필요하다”며 다액의 현금을 대출받아 인출하려 것에 수상함을 느껴 인출을 제지하고 112 신고했다.

순천경찰청 은행원 B씨는 비슷한 시기에 50대 고객이 “무조건 현금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며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사용처 등을 물어 인출을 제지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전화 금융사기는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열 기자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는 최근 야간에 동부 관내에서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윤시원 팀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전남도노사민정협, 자활센터 노무관리 등 업무협약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지역자활센터 취약 노동자 노동권의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주종섭 전남도의원, 문길주 전남도노동권익센터장, 자활센터 대표자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남지역 23개 자활센터에 노무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도노동권익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해

사업장 노무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전주전라제주 직업병안심센터는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 복지시설 간식 봉사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는 “최근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은누리재활원 등에서 간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0여명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는 대나무축제 기간의 판매장 운영 경험과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딸기주스, 와플 등의 간식을 만들어 제공했다.

김금남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장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전북·경남·경북 여성새일센터 ‘교류 세미나’

전남도여성가족재단 전남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가 최근 이틀간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영호남 교류 세미나에 참석,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영호남 교류 세미나는 매년 전남·전북·경남·경북 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김재정기자

올해는 경북광역새일센터 주최로 열렸다.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저출산과 여성의 고용’ 특강이 이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센터별 발표와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정기자

최갑렬 광주불교방송 사장, 전남대병원 후원금 기탁

최갑렬 광주불교방송 사장(삼일파라부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이 8일 전남대병원에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의료 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 사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고 수준의 지역거점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파라부문화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도서관 건립 기금, 산학협력 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에 30여억원을 지원했다. /최명진기자

영광군청년센터, 청년사업 ‘남다른 대학’ 입학식

영광군청년센터는 “최근 우등숯불길비에서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남다른 대학 입학식’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입학식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50여명과 박성문 청년센터장을 비롯해 원복성 청년지대 이사장, 임미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청년지원팀 팀장과 주무관, 영광군 청년센터 직원 및 영광군 청년 등이 함께했다.

‘남다른 대학’은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조 모임형 프로그램으로 7-10월 각 과별로 4회씩 총 20회가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스트레스 파괴학과 ▲우리 연애나할까 ▲돈 좀 모아볼까 ▲말 좀 해볼까 ▲



작심삼일 부서블과로 구성되며,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박성문 센터장은 “남다른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연대감을 갖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장재준 목포비파클럽회장, 취약계층에 백미 기탁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전남지구 서해중지방 목포비파클럽은 “최근 장재준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 회장이 취임 봉사활동으로 목포부주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백미 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장재준 제10대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목포하나노인복지관에 10kg 50포, 신안군공립요양원에 10kg 50포를 추가 기탁했다.

장재준 목포비파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전달할 백미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목포시 부주동장은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본사손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광일 ▲부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박문옥 ▲운영위원장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 ▲노진성 ▲부위원장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백종환 ▲부위원장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호 ▲기획총무위원장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

부음

▲홍창은씨 별세, 정준(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실인문협력담당)씨 장인상=발인 10일(수) 오전 11시 목포 삼목장례식장 208호실(061-274-4441).